

프랑스 중고교의 독서교육

학교 · 도서관 · 교육국이 삼위일체 이뤄

李姬載

숙명여대 부교수 · 서지학

부모는 가장 훌륭한 독서지도교사

교육이 순조로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교육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되지 않는다. 온 국민이 체질적으로 독서와 밀착되어 있을 때 독서교육이나 독서운동 역시 굳이 논의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프랑스국민 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취미가 독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독서주간이니 캠페인이니 하는 것은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독서라는 단어가 만연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프랑스사람들에게 있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음식물의 섭취와 비슷한 비중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후자가 육체를 지탱하고 살찌게 하는 것이라면, 전자는 정신을 바로잡고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그 질과 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점을 아마도 가장 잘 아는 국민일 것이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프랑스 중고등학교의 독서교육은 특별히 따로 구분되어 이루어진 다기보다, 유아기로부터의 배경과 졸업 후의 진학이나 사회생활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유치원과 국민학교가 올바른 읽기와 쓰기에 주력한다면, 중고등학교는 올바른 독서능력을 확고하게 배양시켜 줌으로써 평생독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것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이전 책읽기에 취미를 갖게 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조성해 주는 부모로부터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인의 평생 독서습관을 체질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부모들은 이미 학교교육이나 사회분위기를 통해 훌륭한 독서가 또는 독서지도교사의 자질을 갖고 있다. 그들은 아직 읽기와 쓰기를 배우지 않은 2~5세의 자녀에게 하루에 두 세차례 정기적으로 그림책이나 이야기책을 보여주고 들려줌으로써 준비단계로서의 독서생활의 기본소양을 기르는 데 주력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강요나 강제에 의한 인상을 주어 흥미를 감소시키거나 그 자체를 싫어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야 하며, 음악이나 그 외의 시청각자료가 책에 대한 흥미유발의 보조매체로 동원되기도 한다.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독서교육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읽기와 쓰기교육이 시작되고, 이것이 국민학교까지 이어진다. 교사는 이들을 훈련시키며 이해력의 증진을 위해 단



순히 기계적인 방법의 반복이 아니라 문장구조의 이해, 단어의 知的내용, 표현思想의 이해를 도와주고, 전체내용의 실제적이고 知的인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내심있고 세심한 방법으로 몇년씩 꾸준히 지도함으로써 결국 읽기욕구를 자극, 고무, 발전시키고 읽기를 즐기는 데 이르게 한다.

다양한 목적, 자율적인 학습에 치중

중고등학교에 진급해서도 이같은 기본 방침상의 변화는 없으나, 더욱 다양하고 수준높고 교육과 직결되는 방법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논의되는 얘기지만, 선진형의 교육방법은 교사 또는 교수가 교육내용을 학생에게 일차원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교육내용 전체를 이해하고 핵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참고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풍부한 교육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과는 달리, 유난히 학생들의 자율적 교육방식이 강조되는 프랑스의 경우, 각 학과별 참고도서나 흥미도서를 포함한 독서량은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프랑스는 각급 학교의 교사에서부터 教育省 등의 국가기구에 이르기까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많은 배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교육의 일선에 서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 자신은 각 학교의 중앙도서관, 학급의 기본도서관, 독서실, 해당 市, 邑 또는 區의 도서관, 書店街, 나아가서는 도서에 관한 텔레비전 방송과 컴퓨터까지 이용하여 자신의 학습교수실력을 배양한다. 그러는 한편 학생들의 나이, 능력, 요구, 그밖의 각자의 부수적인 사정의 차이에 따라 가장 알맞는 최선

프랑스국민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취미가 독서'라는 사람은 없다.

독서란 그들에게 이미

당연한 생활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독서교육이 특별히 구분돼

이루어지기보다는,

올바른 독서능력의 배양이란 대전제 아래

유치원에서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평생독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의 도서들을 선택,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학생 스스로 새로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독서 자체의 구체적인 실습은 체계적으로 點讀이나 큰소리를 내어 읽기 등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정규적인 평가도 주어진다.

프랑스 초중고등학교의 독서교육의 배경에 있어 또 하나의 절대적인 존재는 학교와 연관된 국공립도서관의 역할이다. 본래 유달리 기록문화와 전승문화, 그리고 학술 및 예술 활동에 후원을 아끼지 않는 프랑스는 인구수천의 小邑단위까지 반드시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한 둘씩 두고 있어,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이 도서관과 직결된 수준높은 文化圈을 형성하고 있다. 18세기 말엽 프랑스혁명 직후부터 국립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일반국민을 위한 정신문화향상기구로 대두되면서 이미 19세기 말에 어린이와 청소년층만을 위한 도서관이 운영되다가 일차대전 이후 난 후 공식적으로 발족되었는데, 그후 발전을

거듭하여 1970년대 초반에는 2만명 이상 인구지역의 총 850개 도서관 중 396개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으로 집계되었으며, 70년대 말에는 91%의 시, 읍 또는 區의 도서관이 초중고등학교와 연결되어 독서교육에 협력하게 되었다.

시청각자료와 '선정도서목록' 활용

현재 각급 학교와 국공립도서관은 교육의 공동체제하에서 도서관측은 수많은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각 지역마다 설치된 국립교육조사국(IDEN)이 개발한 다양한 방법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교사들에게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학교, 도서관, 교육국 등에 의해 개발되고 제시된 교육방법에는 도서 외에 모든 시청각자료가 동원되는데, 특기할 사실은 그것들이 도서 또는 독서문화 육성의 보조수단일 뿐 도서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없다는 점이다. 인쇄자료가 논리적, 이성적, 추상적인 성격을 띤 것이라면 시청각자료는 감각적, 감성적, 구상적이라 할 수 있는데, 모든 점에서 논리성이 가장 강조되는 프랑스 사회에서 시청각매체는 인쇄매체가 갖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것을 보다 완벽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원활한 독서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도서선정목록을 빼놓을 수 없다. 워낙 수많은 종류의 도서가 끊임없이 출판되어 전문분야의 서적은 말할 것도 없고 평범한 어린이용 도서라 할지라도 대형도서백화점에서조차 완전히 구비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필요하거나 원하는 도서의 실체를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포괄적이건 지역적이건 정기적으로 도서를 소개하는 책자가 독서의 필수불가결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수 없다. 초중고등학교의 각 학과별도서나 교양도서의 선정을 위한 연령별 또는 학년별로 구분된 추천도서목록만 해도 수십종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에는 매달 250種에 대해 비평가의 결정한 선정도서목록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아기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프랑스의 독서교육은 산 경험을 이론화, 종합화, 풍부화시켜 하나의 사물 또는 주제를 대하는 올바른 시각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思考의 知的전개로 발전되어, 프랑스 언어가 맞는 명료성, 풍부성과 함께 프랑스 국민을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문화수준국민으로 이끌어 놓은 절대적인 원동력이 된 것이다.